



## —공개란—

" 아이고, 내가 상거지꼴이 다 되어가네... "

### [ 이름 ]

월매 / Wolmae

### [ 모티브 ]

#### <춘향전>

작자/연대 미상의 고전소설. 양반댁의 아들 이몽룡이 몸종 향단을 데리고 나와 단오날 그네를 타고 있던 퇴기의 딸 성춘향에게 첫눈에 반해, 방자의 도움으로 열렬한 사랑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몽룡의 아버지가 벼슬을 위해 한양으로 떠나며 몽룡 또한 한양으로 떠나는데... 반드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남기고 간 몽룡을 믿은 춘향은 몽룡이 떠나있던 동안 변 사포의 요구에도 굴하지 않고 정절을 지키고, 몽룡은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와 춘향을 정실부인으로 맞는다.

### [ 나이 ]

만 42 세

## [ 키 / 몸무게 ]

164cm / 57kg

## [ 외관 ]

살짝 희끗한 재색 머리카락을 대충 그리모아 느슨히 묶고 본인 기준 오른쪽으로 늘어뜨린 모습, 대충 올려 쓴 검은색 얇은 테 안경 뒤로 초점 나간 회분홍색 눈이나 주름진 눈가에 진 다크서클이 피곤해보이는 사람이라는 첫인상을 준다. 그에 반해 죄수복 세트 일체를 (조금 편집증적으로 보일 정도로) 단정하고 꼼꼼하게 모두 착용했고, 반드시 필요한 물건만 담을 수 있는 작은 보조 주머니를 왼쪽 허벅지에 매달았다. 일자로 다물린 입매나 깡깡해 보이는 눈빛이 고지식하고 칼같아 보이나, 잘 살펴보면 가슴팍에 요란한 분홍색을 띤 나비 모양의 작은 배지를 매달고 있고, 와이셔츠 소매 끝에 자잘한 먼지나 잉크가 묻어있는 때가 잦아 의외로 허술하고 유연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 [ 성격 ]

꼰대 / 심약한 / 잘 휘둘리는

천성이 심약하고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인지라 사소한 것에도 잘 놀라고, 다수의 사람과의 트러블을 피하려고 하는 편. 다만 이는 낮은 사람과 대화하기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생판 남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일들을 피곤해하는 것에 가깝다. 다만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서스럼없이 다가간다.

등지에서 나고 자라 판에 박힌 상식만을 가지고 있는 탓에 본인의 상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성향이 있다. 이른바 꼰대. 꼰대들 특유의— 스스로의 배경지식에 의문을 가지지 않는 근거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다, 자기 판에는 순수한 선의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변인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한다.

가족의 영향으로, 20대 초반 즈음의 사람에게 약한 편이다. 그들이 (자신이 판단하기에)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자신의 방식으로) 성심성의껏 돌봐주려고 한다. 절대다수의 보호자들—또는 그 나이대의 사람들이 으레 그렇듯, 그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향으로 이런저런 소문이나 바람잡이에 잘 휘둘리는 편이다. 귀가 꽤 얇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 [ 기타 ]

태어난 곳도 자란 곳도 V사 동지이고, 직전까지 살던 곳도 동지였다. 동지 내부의 작은 회사를 다니다 이직했다. 경력 덕분인지 서류작업에 특출함을 보인다... 이카루스에 입사한 이후 처음으로 무기를 손에 들어 본 초짜 중의 생 초짜. 처음엔 무기를 손에 드는 것도 꺼려했으나 지금은 그럭저럭 적응해서 잘 사용하는 중. 소지한 무기는 40cm 길이의 철헤.

키우는 딸이 V사의 가상현실 세계에서 활동하는 아이돌이다. 가슴팍의 형광 분홍색 나비 배지는 딸이 직접 만든 아이돌 굿즈. 정작 본인은 가상현실을 이용해 본 적 없다. 이유는 딸의 가상현실 이용료가 터무니없이 높기 때문. 무지막지한 요금을 대느라 필요 이상으로 과로했던 과거 탓에 자주 피곤해 하며 돈에 쪼들려 있다. 이렇게 시달린 것이 무의미하게도, 현재는 딸과 연락두절 상태이다.

아이고, 라는 감탄사를 습관처럼 사용한다. 좋아하는 것은 정적이고 단조로운 것, 싫어하는 것은 유동성이 심하고 변칙적인 것. 왼쪽 허벅지의 작은 주머니에는 초콜릿 몇 개와 가족사진, 손수건 한 장이 들어있다.

## [ 대표 속성 ]

오만

## [ 스킬 ]

이름	목표 탐색
속성	오만
타입	타격
부가 효과	[마비] 다음 턴, 합이 3으로 고정된다.
코인 앞면 수치	17
코인 뒷면 수치	3
설명	

### [ 고유 예고 ]

EGO 이름 - 남겨진 기다림

EGO 효과 - 최소 1 ~ 최대 2명의 적에게 디버프 효과를 부여하는 예고를 희망합니다.

### [ 관계 ]

---

—비공개란—

[ 트리거 워닝 ]

## [ 비밀 설정 ]

## [ 수감 이유 ]

딸은 점점 더 높은 수준의 가상현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점차 이용료는 높아져 갔다. 월매의 월급으로는 생활비와 이용료를 감당할 수 없어 고민하던 찰나, 이카루스 컴퍼니에서 현재 연봉의 5배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직하게 되었는데... 이직 직후 요금 지불을 위해 V사를 찾아갔으나 그 사이 딸과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V사 측에서도 딸의 거취를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와 막막한 상황에 처했다.

## [ 챕터 진행 희망 도시 ]

V사, 또는 비희망

## [ 챕터 IF ]

챕터 진행 시 - V사의 가상현실 속에 들어갔을 때, 딸의 과한 팬을 만나서 위치를 추궁당하고 스트레스 받아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합니다.

## [ 러닝 IF ]

## [ 캐릭터 어필용 질답 ]

자신을 안내자라고 소개한 자가 당신의 맞은 편에 앉아 서류를 펼쳤다. 당신에게는 그의 손에 들린 '입사지원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다. 당신의 기억에 없는 서류를, 인물은 여상하게 넘긴다. 까만 글자를 모두 확인한 안내자가 입을 열어 묻는다.

Q. 우리는 다른 회사와 다르다. 직원들을 ‘수감자’라고 부르고 있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나?

A. ... (한숨을 푹 내쉬곤) 어찌 모르겠어. 다 잘못된 게 있으니 그렇게까지 부르는 거겠지... 안 그렇소?

Q. 말만 ‘수감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 버스에 오르는 순간 너희들은 모두 수감자에 준하는 처우를 받게 된다. 이해했나?

A. 죄인을 죄인이라 부르는데 토를 달 수야 있나. (헛웃음을 짓는다) 아이고, 상냥한 안내자시군. 이해했소.

Q. 마지막으로 한번 더 확인하지. 회사는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버스에 오르는 순간부터 너희들은 자유가 박탈된 죄수로서 취급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수감을 차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A. 아이고, 자식 키우는 데 필요한 게 있는데 어떻게 호오를 가리겠어. 그냥 하는 거지... (조금 침묵하다가) 말도 없이 사라진, 되바라진 딸도 찾아야 하고 말이야. (혼자서는 찾기 힘들 게 분명할 테니, 하고 덧붙였다)

안내자는 당신의 마지막 대답을 듣고 서류를 정리해서 일어섰다. 모일 모일 모시까지 이카루스 사의 버스 플랫폼으로 모이라는 말과 함께. 그의 떨떠름한 반응이야 어떻든, 당신의 앞에는 지옥행 편도 티켓이 한 장 놓였다.

---

## —오너란—

### [ 오너 서약 ]

1. 공지사항 문서에 명시되었듯 본 커뮤니티에는 정해진 스토리가 존재하며 이는 캐릭터들의 의사와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완벽한 해피엔딩을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Y)

2. 해당 커뮤니티의 스토리 구조상 특정 캐릭터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총괄진의 캐릭터는 스토리 라인에 참여하지 않으며, 모든 주인공은 러너의 캐릭터 중에서, [ 챕터 IF ] 항목을 통해 선발합니다. 따라서 모든 러너 캐릭터에게 동등한 역할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Y)

3. 커뮤니티는 취미생활의 일환으로서 일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즐겨야 합니다. 커뮤니티에 대한 과한 몰입으로 현실과 가상이 구분 되지 않는 것 같다면 러닝을 재고할 것을 약속합니다.

(Y)

4. 공지 및 주요 문서를 읽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에 총괄진은 일절 책임지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Y)

5. 커뮤니티 러닝 도중 캐릭터가 원치 않는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폭력적, 반도덕적 소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커뮤니티의 스토리 및 다른 러너 캐릭터의 설정이 민감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이를 숙지하였습니다.

(Y)

6. 러너 간 마찰이 생겼을 경우, 시스템 사용 중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등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합의 없는 공론화가 아닌 커뮤니티 내 DM을 통한 대화로 해결하겠습니다.

(Y)